



스포츠스타들이 뭉친 '노는 언니'(왼쪽 사진)부터 60대 연예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담은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까지 최근 여성 출연자로만 이뤄진 예능프로그램 제작이 활발하다. 사진제공 | E채널·KBS



## 예능은 지금 '언니들 전성시대'

'언니들 세상'이다. 여성 출연자로만 구성된 예능프로그램들이 잇달아 시청자들을 찾는다. 남성 방송인들이 예능프로그램의 주축으로 나섰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여성 출연자들의 당당함, 그들이 빛내는 호호과 연대감 등으로 공감과 재미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 ● '여성들이 모인 프로그램에 목말랐다'

8월4일 방송을 시작하는 E채널 '노는 언니'는 박세리(골프), 남현희(펜싱), 광민정(피겨스케이팅) 등 6명의 여성 스포츠스타로 구성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다양한 스포츠 예능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여성으로만 출연진을 꾸린 경우는 처음이다. 연출자 방현영 PD는 14일 "여성 출연자들이 예능프로그램에서 한 정적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

여성 스포츠인 문치고, 중년 여성 연기자·가수 한 지붕  
당당한 모습·폭 넓은 소재 발굴 등 색다른 재미 기대감

까웠다"며 "박세리도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모인 프로그램에 목말랐다'며 다른 멤버 섭외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다"고 밝혔다.

여성 연예인들을 전면에 내세워 차별화를 꾀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1일부터 방송 중인 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연기자 박원숙, 김영란, 문숙, 가수 해운아가 함께 살면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MBC '나혼자 산다'는 최근 한혜진, 박나래, 그룹 마마무의 화사 등 여성 멤버들만 따로 모아 '여은파'라는 웹 예능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각각 2일과 8일 종영한 엠넷 '굿걸'과 MBC 웹 예능프로그램

'힙합걸즈'도 래퍼 치타, 에이리, 래퍼 이영지, 하선호 등 여성 스타들을 내세워 신선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 ● 호기심 자극하는 '신선함'이 무기

전문가들은 방송가의 고질병으로 꼽혀온 남녀 출연자 불균형 문제가 차츰 해소되는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대부분 예능프로그램은 남성 출연자가 주도해왔다. 여성 연예인들의 무대는 2013년 MBC에브리원 '무한걸스'와 2017년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가 전부였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여성 출연자를 부가적 역할로 바라보는 방송가의 고정관념, 야외에서

활형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유행 등으로 여성 연예인들의 설 자리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보기 드물었던 만큼 출연자 구성만으로도 신선함을 자아내고, 한층 폭넓은 소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이 여성 예능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여성 출연자들의 당당한 모습으로 얻는 통쾌함, 공감감을 기반으로 한 여성들의 연대 등 새로운 이야기거리로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가의 시선도 바뀌고 있다. 방현영 PD는 "여성 출연자로만 꾸린 예능프로그램을 '모험'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면서도 "기존 작업에 지친 연출자들 사이에서 '여성 예능프로그램'을 향한 관심과 호기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신현준 갑질 주장 전 매니저 이번엔 프로포폴 의혹 제기

신현준 측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배우 신현준(51)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가 이번에는 그의 과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신현준의 소속사 HJ필름의 대표이자 매니저였던 김모씨가 13일 "신현준이 2010년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낸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그가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 진료 중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임시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등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불법 투약 정황" 여부 및 정확한 시기를 따져 마약 투약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현준 측은 "당시 허리가 아파 의사의 처방과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10년 전 종결된 사안으로 김씨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김씨는 13년 동안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폭언과 적정한 수준의 임금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현준 측은 13일 "거짓투성이 김 대표와 그가 제공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 매니저가 프로포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 카카오M 독과점 우려? "좋은 콘텐츠는 좋은 인프라서 나온다"

2023년까지 3000억원 규모 투자  
모바일 콘텐츠 240편 제작 밝혀



카카오M 김성수 대표

'종합 콘텐츠 기업'을 표방하는 카카오M이 매년 15편의 드라마와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2023년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가 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카카오M 김성수 대표는 14일 서울시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미디어메이커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드라마 '열혈사제' 박재범·'낭만닥터 김사부' 강은경 작가 등 "그동안 영업한 제작 인력이 참여하는 드라마와 영화를 내놓을 계획" 등을 공개했다. 또 MBC '황금어장' 등을 연출한 오윤환 제작총괄이 지휘하고, 20여명의 예능프로그램 연출자들이 합류한 예능스튜디오를 통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카카오M은 이와 함께 2023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240편의 디지털 영상을 제작한다. 이를 위해 스

마트폰 무료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자체 제작 영상을 담아낼 새로운 영상 플랫폼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고객 입장에서 유튜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대안 매체가 나와 더 이상 TV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병현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등 매니저먼트사와 드라마 제작사 글엔그림미디어 등 17개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인수하는 등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좋은 콘텐츠는 좋은 인프라에서 나온다"며 "영세한 제작사와 기획사의 체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작품의 판권·제작진·스타 캐스팅을 묶는 '패키징' 서비스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아이콘' 김진환·구준회, 음주운전 방조 의혹

운전자 혈중알코올 면허 취소 수준  
YG엔터 "면밀히 조사해 엄중 조치"

그룹 아이콘의 멤버 김진환과 구준회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두 사람이 이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40분쯤 경남 남해군 창선면 1차전 국도에서 이들이 탄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두 멤버와 지인인 운전자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 멤버들은 서울로 돌아와 숙소에서 안정을 취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대역한 승합차로 주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당시 A씨가 면허 취소 수준(0.008%)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김진환과 구준회의 방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진환과 구준회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함께 탔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두 사람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김진환

구준회

드러날 경우 이들은 물론 아이콘의 그룹 활동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음주운전에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실을 면밀히 내부 조사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세훈&찬열, 50개 지역 아이튠즈 1위



엑소 찬열(왼쪽)과 세훈

그룹 엑소의 유닛 '세훈&찬열'이 새 앨범으로 전 세계 50개 지역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올랐다. 13일 세훈&찬열이 선보인 첫 정규 앨범 '10억뷰'가 14일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일본, 브라질 등 50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한터 차트, 신나라레코드, 핫트랙스 등 국내 각종 음반 차트에서도 일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QQ뮤직에서는 올해 케이팝 그룹 앨범 중 최단기간 공개 1시간25분 만에 판매액 1백만 위안(1억7000만여원)을 돌파했다.

### 배우 리베라, 실종 5일만에 숨진 채 발견

미국드라마 '글리'로 잘 알려진 배우 나야 리베라(33)가 네 살배기 아들을 남기고 호수에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팔내 시신으로 발견됐다. 14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리베라는 8일 아들과 함께 호수에서 시간을 보내다 실종됐다. 이날 오후 호수에 조류현상이 심해지면서 아들을 구한 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리베라는 생전 아들에 대한 진한 사랑을 SNS를 통해 드러내었다. 나야 리베라는 1991년 미국 CBS 드라마 '더 로열패밀리'로 데뷔해 '글리'로 국내 시청자에 얼굴을 알렸다.

### '특혜 의혹' 김호중, 병무청장 만남 왜?



김호중

병역 특혜를 노렸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강원지방병무청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 김호중 측은 14일 "소속사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강원지방병무청장을 만났다"면서도 "병역 특혜를 얻기 위한 만남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달 3일 재신체검사를 받았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군대에 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자신의 전 매니저 A씨가 "팬 카페에서 활동한 50대 여성이 접근해 '병역 특혜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해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 '폭언 논란' 울림엔터 이종엽 대표 사과

그룹 인피니트 멤버 김성규와 남우현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논란으로 비난을 받은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이종엽 대표가 사과했다. 이 대표는 14일 소속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린 경솔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남우현과 김성규는 최근 이종엽 대표와 가진 야외 술자리에서 SNS 생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이 대표는 술에 취한 채 멤버들의 머리를 때리며 욕설을 가했다. 이어 "아무리 격의 없는 사이라도 해서는 안 될 언행이고 두 사람에게도 사과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여자친구, '쇼! 음악중심' 출연 또 불발



여자친구

결그룹 여자친구의 MBC '쇼! 음악중심' 출연이 또 다시 불발됐다. 14일 소속사 쏘스뮤직 측에 따르면 여자친구는 13일 새 앨범을 발표하고 각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 등에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18일 방송예정인 MBC '쇼! 음악중심'에 출연하지 않는다. 이유는 쏘스뮤직 모회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MBC 사이의 갈등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이 해외 일정을 이유로 MBC만 제외하고 연말 음악 축제에 출연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다. 이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등 소속 가수들의 '음악중심' 출연이 줄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